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농협 301-0153-7296-01	■ 문의 02)2675-5181~3

진행과정과 최종결말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사 55:8,9)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언제나 만사가 자신의 원대로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일생에는 일이 원대로 되는 경우와 원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는 비교적 사소한 일도 있고, 중대한 일도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당면한 결과에 골장 민감한 감정반응을 나타냅니다. 의기양양하거나 의기소침합니다. 원대로 되어 환호하고 의기양양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으나, 원대로 되지 않았다고 심하게 좌절하고 의기소침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반응입니다.

- 옛날 중국 만리장성의 변방에 <새옹>이라고 불리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옹이 아끼던 말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아찌면 좋아요. 그 좋은 말이 달아나 버렸으니> 그러나 노인은 태연하게 <이 일이 화인지 복인지 누가 알겠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노인 의 말이 다시 돌아 왔는데 야생마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에게 복받았다고 축하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대답하기를 <이 일이 복인지 화인지 누가 알겠소>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아들이 야생마를 길들이려고 타다가 낙마하여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노인에게 <아찌면 좋아요. 귀한 아들이 다리를 심히 다쳤으니> 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태연하게 <이 일이 화인지 복인지 누가 알겠소> 하였습니다.

해가 바뀌어 오랑캐가 쳐들어왔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모두 징집되어 오랑캐와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아들만은 살아 남았습니다. 다리를 절기 때문에 징집 면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흔히 회자(膾炙)되는 새옹지마(塞翁之馬) 이야기의 교훈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수긍합니다. 하지만 그 교훈대로 실천하여 어떤 경우에도 마음에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발생하는 좌절감, 분개심, 적대감을 긍정적 에너지로 승화시키는게는 더욱 어렵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기대대로 되지 않거나, 예상하지 못한 곤경에 직면하였을 때 대응하고 극복하는 비결이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에 제시된 그 비결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곤경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마음상태, 정신상태는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마음과 정신은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정신이 허약하면 사소한 난관을 만나도 당황하고 낙심하지만 정신이 강하면 쉽게 극복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마음이 우악하고 불안정한 사람은 난관을 돌파하지 못합니다. 곤경에 처하면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가버립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려면 훈련이 필요하지만 훈련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간혹 초인적이라고 할 정도로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허룻강자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처럼 무지의 소치이거나, 함부로 날뛰는 만용(蠻勇)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정신상태로서 엄청난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비결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 두 사람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나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 왕의 궁중에 데려가서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도 모세는 자기 혈관에 이스라엘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현장에서 그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지명수배 대상이 되어 왕궁을 떠나 멀리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때 모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모세는 호구지책을 위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세월은 허영없이 흘러서 모세는 80노인이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확대하는 애굽 왕의 정책에 의해 이스라엘 민족 멸절의 위기에 있었습니 다.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출하여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기업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여러모로 자신의 임장을 고려할 때 이런 엄청난 임무를 맡아 수행할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찔한 마음에 자신감이 없고 두려웠습니다. 그리하여 거듭 사용하는 의사를 피력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가 깨달은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역할을 하는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도끼가 정작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도끼질을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기 톨이 나무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벌목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작을 패거나 벌목하는 사람에게 도끼나 전기 톨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경우이고 하나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를 혼돈하지 않아야 합니다.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이 내린 사건, 홍해를 육지

처럼 건넌 사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40년 동안 먹은 사건 등등 모세의 능력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인식을 가지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신은 적임자가 아니라고 열거한 이런 저런 핑계를 일축하신 하나님이 주신 대책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모세 자신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모세가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초인적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막중한 책임을 이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집적인 병태를 40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결집하면 하나님과 모세에게 그들을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냐 라고 이처에 맞지 않은 소리로 원망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나안 땅 탐지를 위하여 선발한 12명의 정탐꾼 중 에 한 사람으로 활약한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성읍들이 얼마나 견고하고, 사람들의 체력이 우람하며, 군사들과 무기가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영도자도 합참계 이틀을 온 목이 곧고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솔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 다.

이러한 이유로로 인하여 부심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중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하여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테에 이르는 헛 족속의 온 땅과 또 하지는 편 대하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죄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와 나와 함께 하느니라...>(수 1:2-9)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적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 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술과 전략을 말씀하지 않았 습니다. 요점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무턱대고 만용을 부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어 야 하는 기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죄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는 지시사항입니다. 여호수아는 일생을 이 때 받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과연 초인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둘째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 기대대로 되지 않거나, 예상하지 못한 곤경에 직면하였을지라도 그로써 결말인 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계속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인식을 가지 는 것입니다.

<끝나지 전에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미국 프로 야구 선수 <요기 베라>의 명언입니다.

야구경기에서 자신이 편되고 있는 팀이 많은 실점을 하고 8회 말까지 득점이 없으면 패배이 원연하여 응원하던 관중들 중에 자리를 뜨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렇지만 기적 같은 일이 일어 나는 일이 있습니다. 7회 8회 말까지 6대 0 스코어로 진행되던 9회 말 공격에는 역전의 기마이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9회 말에 수비진에서 저만치고 방심하여 연속 실수를 하는 덕택에 도루와 안타가 이어져 만루가 되고 그 다음 타자가 장쾌한 홈런을 때려서 한계면에 넉 점 을 얻게 됩니다. 이에 사기충천한 다음 타자들이 연속 안타를 쳐서 석 점을 더 얻어 7대 6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야구경기의 극적인 묘미가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경기들 로 인하여 <끝나지 전에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명언이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끝나지 전에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은 성도들의 믿음과 경험을 형용하는 표현으로 적절합니다. 이는 신앙적인 표현에 속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과 역사의 결말은 하나님의 장중에서 판가를 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주 잘못 생각하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

는 <죽으면 그 뿐이다. 죽으면 다 끝난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인생들에게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기 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전 15:19)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 고난 당하고 순교까지 가까이 당하는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 니다. 바울은 아들처럼 여기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력하기를 <권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 4:6-8)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는 달려갈 길을 마쳤지만 <이제 후로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최종결말에 대해 기대에 가득 찬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는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외의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하시는가를 유심히 살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메시지에 결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결말이 사실은 과정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여하고 기대한 일의 결말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과정에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결말을 내기 전까지는 여전히 일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여 낙심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자신이 마땅히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보고 격정하고 불만을 갖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은 미련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실제 사건 중에서 이러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도우심을 받아 430년 간의 애굽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악한 애굽 왕 바로의 학정으로 인하여 노예처럼 혹사 당하다가 자유를 얻고 해방된 그들의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췌과 풀이 흐르는 가나안에 대한 희망에 부른 가슴을 안고 한창게 말걸음을 옮겼습니 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기업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만 수행하면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지냈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보내어 인도하셨습니다. 밤낮으로 갈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방향을 전함하도록 명령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까지 숙곳에서 애담으로 올라갔던 방향을 갑자기 돌이켜서 남동쪽 방향으로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은 모세가 알고 있었고 예상했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도달한 곳은 앞은 홍해이며 좌우를 보니 이쪽은 바위부성의 언덕으로 풀이 없는 비바하듯이와, 저쪽은 애굽의 오새와 수비대가있는 밀들과 바알스본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행로를 추적하던 애굽의 수비대가 애굽 왕 바로에게 이 상황을 즉각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잘못 들어 광야에서 길이 막혀 아직도 이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홍해가 에진을 치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와 그 신하들은 최소한 60만이나 되는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생각에 집착한 나머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기 위한 추격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는 특별히 선발된 병거 600대와 마병과 보병을 이끌고 추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였으므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였다는 말씀이 반복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바로가 운운한 성품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박하도록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의 강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두셨다는 뜻입니다.

국가와 교회에 대하여 유해한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듣고 또 들어도 그마음에 변화가 없다면 강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범입하신 것으로 알면 됩니다. 강박한 마음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예고입니다. 홍해가에서 정마를 치고 후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서 먼지가 하늘로 피어 오르는 모습을 보았고 땅이 동방과 서방으로 나뉘었다. 잠시 후 율곡이 드러나자 그것이 애굽의 병거와 마병과 군대가 달려 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애굽 군대와 싸울 만한 장비나 훈련된 군사가 그들에게겐 없습니 다. 싸울 수 있는 장정보다 보호 받아야 할 아이와 여자와 노인이 더 많았습니다. 숨거나 피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예상하지 못한 곤경에 직면하게 되자 좌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망하였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따지기를 <애굽에 매장자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출 14:11) 하였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출 14:13,14) 하였습니다. 모세가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한 것은 지금 당면한 상황을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과정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였습니다. 우왕좌왕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손길을 지켜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바로의 강박함이 최고조에 달했으니 두 번 다시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징벌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훈련된 군사가 그들에게겐 없습니 다. 싸울 수 있는 장정보다 보호 받아야 할 아이와 여자와 노인이 더 많았습니다. 숨거나 피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예상하지 못한 곤경에 직면하게 되자 좌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망하였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따지기를 <애굽에 매장자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출 14:11) 하였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출 14:13,14) 하였습니다. 모세가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한 것은 지금 당면한 상황을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과정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였습니다. 우왕좌왕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손길을 지켜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바로의 강박함이 최고조에 달했으니 두 번 다시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징벌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출 14:15,16)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처리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악한 자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한다고 하여 하나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진에 접근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뒤편으로 옮기니 구름 기둥도 따라서 뒤로 옮겨졌습니다. 그 구름 기둥으로 인하여 애굽 군사들이 자책을 분간할 수 없어서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진 편으로는 불기둥이 바위에 우르르 밟새도록 대낮 같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손을 바다를 향하여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보내셔서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였습니다. 갈라진 물이 좌우에 베풀려 서 있었습니다. 바다 가운데 생긴 길이 마른 땅이 되게 하였습니다. 질퍽거리는 진흙 땅으로는 걸어서 가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착오나 빈틈이 없습니 다. 200만 명이 다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건너 가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거의 다 건너갔을 때 구름 기둥이 옮겨갔고 애굽 군대는 그들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지금 목도하는 신비한 일들에 대해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해 보았다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물려졌을 것인데 오히려 애굽 군사들은 겁도 없이 뒤쫓아서 바다 길로 달려 갔습니 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 길로 지날 때는 마른 땅이 되어 용이 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추격하는 애굽 군대가 그 땅을 따라 들어가니 그들은 제대로 걷기 힘들었고 병거의 바퀴들이 벗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이 진흙탕이 되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겁을 잡아먹은 그들이 도망하려고 허둥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기를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즉시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자 바다가 원래대로 회복되었습니다. 애굽 군사들이 허겁지겁 도망하였으나 때는 늦고 말았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 기록을 통하여 명명한 메시지 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기대하고 노력한 일이 예상을 빚나간 결과로 다가를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면한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과정에 속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결말을 내기 전까지는 여전히 일을 진행하시는 중에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 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벌은 가차없고 엄중하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편에서 믿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으면 어떤 상태에 직면하여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굳세게 붙들므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당면한 현재 상황이 기대하고 노력한 일의 결말 같아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강박한 자들을 처리하실 때까지 일을 진행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최종결말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사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사 55:8,9) 하였습니다.

2020년 4월 19일(주일)
설교말씀

한교연, 2020부활절새벽연합예배

부활의 기쁨이 온누리에 헌금은 취약계층 나눔에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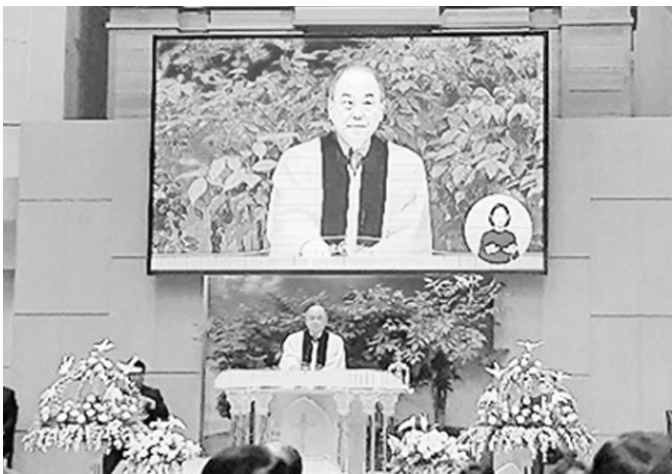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지난 4월 12일(주일) 새벽 5시 30분 군포제일교회 예루살렘성전에서 2020년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부활을 온누리에 선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순서와 참석인원을 대폭 축소한 가운데 열린 이날 새벽연합예배는 교회 입구에서 발열 체크와 손 소독제를 바르고 마스크를 쓴 사람들 입장을 시키고, 예배당 안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에 맞춰 참석자 간 거리를 2미터 이상 띄어 앉는 등 철저하게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한교연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의 사회로 열린 예배는 상임회장 김효종 목사의 기도, 공동회장 신광준 목사의 성경봉독 후 군포제일교회 합평루아 찬양대가 부활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와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자' 28:11~20)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부회장 박용구 장로가 봉헌기도를, 기획홍보실장 김훈 장로가 부활절 메시지 낭독에 이어 광고를 전하고,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설교를 전한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주님은 우리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오늘 부활하셨다."



라며, "무덤을 찾아 온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였지만 천사로부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첫 소식을 전해 듣고 눈물이 변해 기쁨이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권 목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고, 특히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데 일조하지 어려운 조류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라며, "이는 인간의 무력함과 나약함을 그대로 보

여주는 것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힘입어 코로나를 이겨내고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연합은 이날 새벽연합예배를 36개 회원교단과 15개 단체에 인터넷 영상으로 생중계해 함께 주님의 부활을 찬양했으며, 이날 드려진 부활절 헌금은 사회 취약계층의 코로나 예방에 전액 사용하기로 했다.

한국교회 '자유민주주의기독연대' 설립

한국교회가 시대의 균형 잡는 일에 앞장

한국교회가 대사회 대정부에 대해 한 목소리로 담아내기 위한 '자유민주주의기독연대' 창립대회 김선규, 권태진, 심영식-이하 기독연대)가 설립됐다.

이와 관련해 기독연대는 최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교회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립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기독연대는 현 정부의 좌경화된 정책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시장경제체제가 무너졌다고 지적하며, 한국교회가 시대의 균형을 잡는 일에 반드시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415 총선과 차기 대선까지 활동하는 한시적 조직으로, 새로운 연합단체의 출범이 결코 아님을 강조했다. 자유민주주의기독연대는 성경적 가치와 보수적 정체성을 함께 추구한다.

기독연대는 △사회주의 정책 추진 중지 △경제를 침체시키는 정책 폐지 △편파적 분

열보다 대통령 협치 △급진적 파괴보다 창의적 대안 수립 △전부적 인권은 보장하되 출산을 막는 동성애와 동성혼 반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개인의 가정, 국가 파괴의 주범인 각종 중독 예방과 치유 집중지원 △한미동맹의 강화로 강력한 국방력 회복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 체제의 수호로 국가의 정체성 확립 △북한인권의 개선 적극 추진 등의 목표를 실천하기로 했다.

기독연대 한 관계자는 "교회는 권세자에게 기독교의 입장을 엄중하게 전하며 선도할 사명이 있다. 만일 정부가 체제전환을 불사하면서 종교와 자유를 계속 억압한다면 100년 전 3.1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끈 한국교회처럼 우리는 기도하면서 거룩적인 구국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415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전국 6만 교회 1200만 성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노인복지협, 제229회 조찬기도회

코로나19 퇴치 위해 강력히 기도

한국노인복지선교협의회(대표회장 조지현 목사)는 지난 4월 10일 오전 7시 서울 종로구 여전도회관 종려나무 엘리프스홀에서 제229회 조찬기도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전염병 퇴치를 위해 모두가 하나 되어 강력히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한창영 목사(사.기침공동회장)의 사회로 김원산 목사(경원교회)의 대표기도, 장기숙 선교사의 성경봉독, 심재선 목사(사.자유대한지키기운동본부 총재)

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심재선 목사는 시 91:6-11 말씀을 본문으로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늘날 코로나19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경고의 책계이지만, 우리는 두려워 말고 '저가 저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한나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강연자 목사의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 황준의 목사(사.조국평화통일협의회 상임이사)의 봉헌기도·봉헌송, 이흥규 목사(예장웨신 성경총회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피해 미자립 교회 돕기 후원금 전달

기아대책 "서울 교회들, 코로나19 피해 대구경북지역 미자립 교회 돕는다"

미션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대구·경북 지역의 미자립교회들을 돕기 위해 서울연합후원이사회가 후원금 4,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아대책은 지난 4월 9일(목) 오후 유원식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 김장배 기아대책 서울연합후원이사회 회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전달식을 서울 강서구 기아대책 시육에서 진행했다.

기아대책 후원이사회는 기아대책의 떡과 복을 정신에 동의한 목회자, 지역사회 리더 등이 참여한 후원자들의 모임으로, 서울연합후원이사회는 서울 내 23개 구(區) 단위 후원이사회 소속 400여 명의 후원이사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된 후원금은 서울 내 기아대책 후원이사회와 유관 교회들이 함께 참여

해 마련했으며, 대구·경북 지역의 30개 미자립교회 돕기를 비롯해 지역 내 어려운 가정을 위한 방역 및 생필품키트 지원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김장배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자립 교회들은 존폐의 기로에 놓여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며 "이런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는 방법은 함께하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후원취지를 밝혔다. 유원식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은 "미션NGO로서 선한 일을 함께하는 한국 교회가 있어 매우 감사하다"며 "재난은 가장 어려운 이웃에게 먼저 찾아오기에 기아대책은 더 낮은 곳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하는 사랑밭’ 남수단에 성경 기증

대한성서공회 반포센터 통해 7,200부 후원



대한성서공회 반포센터(경기도 용인시 소재)는 '함께하는 사랑밭' (권태일 목사)의 후원으로 남수단과 에티오피아 난민 캠프에 '뉴에르어 성경' 5,100부와 '딩카 보르어 신약전서' 2,100부를 보내는 기증식을 지난 4월 1일(수) 오전 11시에 가졌다.

2011년 수단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남수

단 상황이다.

한편 뉴에르 부족은 남수단과 에티오피아에 걸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에티오피아 캄벨라 지역의 뉴에르 부족 난민 캠프에는 약 40만 명의 난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남수단성서공회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성경 보급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전해진 성경을 통해 뉴에르 부족과 딩카 부족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기증식에서 예수마음교회의 안혜권 선교목사는 '합력하여(롬 8:28)'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여러분임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전했다.

단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있다. 주된 딩카(Dinka)부족과 뉴에르(Nuer)부족을 비롯하여 64개의 다양한 부족들이 모여 살아가고 있다.

분리 독립 이후에도 남수단 내전이 이어지며 많은 사람들은 전쟁의 아픔으로 고통 받았다. 이들을 위한 물질적, 영적 지원이 절

‘발달장애인청년작가전2020’ 작품 공모

선정된 작가 도록제작 및 작품전시 지원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이장 최공희 장로)에서 '발달장애인 청년작가전 2020' 작가를 공모한다.

발달장애인청년작가전2020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청년작가를 발굴하고 창작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후원한다.

응모자격은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 대한민국 발달장애인 청년작가이다. 출판부분은 평면과 입체 부분이다. 접수기간은 4월 8일(수)부터 4월 22일(수)까지이며, 접수방법은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결과 발표는 4월 29일(수) 홈페이지

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작가 또는 작품은 도록제작과 작품전시 지원을 받게 된다.

'발달장애인청년작가전2020'은 6월 18일(목)부터 6월 29일(월)까지 갤러리라메르 제3전시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는 www.nanum.tv이다.

영원무역, ACTS 외국인 학생 위한 의류 나눔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로 잘 알려진 ㈜영원무역이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국제교육원(AIGS)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의류 나눔을 실천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번 의류 나눔으로 본국을 떠나 한국에서 유학 생활 중인 외국인 학생들은 따뜻한 의류 나눔에 큰 힘을 얻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는 세계복음화의 설립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 21개국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을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Th.M.) 신학박사(Ph.D.) 과정을 통해 지구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목회자, 선교사, 신학자로 훈련하고 있다.

백석대·백석대학교회 신안동주민센터에 방역품 전달

백석대학교(총장 장중현)와 백석대학교회(담임 공규석 목사)는 지난 4월 17일(금)



오전 10시, 천안 동남구 신안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방역품을 전달했다.

백석대학교회 공규석 담임목사는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모든 방역용품이 보건 취약계층 여러분들에게 전달돼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란다"며 "금전적 어려움으로 구매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 기부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천안시 신안동 이영우 동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직까지 취약계층이 많은 편"이라며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68차 총회 제12회 임원회

20년도 69차 정기총회 가을로 연기

향후 추이 관망해 가면서 일정 정하기로...코로나19 전염병에서 회복 위해 기도

교단 총회(총회장 신재영 목사) 제68차 총회 제12회 임원회가 지난 4월 20일(월) 오전 11시 카카오톡 회의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어 세계 각국이 대책에 부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거리두기를 통해 확산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카카오톡 단체톡방에서 각종 보고와 회부를 처리하고 주요내용 등을 결의했다.

이날 임원회는 교단 총회장 신재영 목사 주재로 열려 서기 정영진 목사의 회원점명, 의장 신재영 목사의 개회선언 후 총무보고사항이 이어졌다. 총무 이경진 목사는 보고사항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68·5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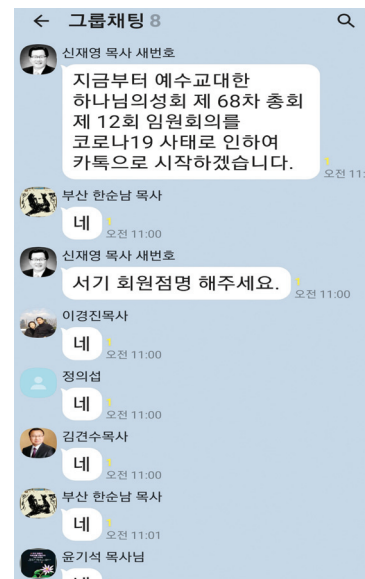
실행위원회를 비롯 68차 총회일정도 가을로 변경하기로 했으며 각종 총회 일정과 행사 등이 취소 또는 연기되었다고 보고했다.

이어 재무 한순남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김건수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결의 및 안건토의 사항으로 교역자가임 청원, 전도사 임명 청원, 교회주소변경 보고, 교회전출입 청원, 교역자전출입 청원, 교역자휴직 청원, 교역자사임 청원, 교역자소전 보고, 교회폐쇄 청원 건 등이 결의 및 보고되었다.

기타사항으로 5월 18일(월) 개최 예정이었던 69차 정기총회는 2020년도 가을로 연기하여 개최하기로 했으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관망해 가면서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개최된 68-11차 임원회의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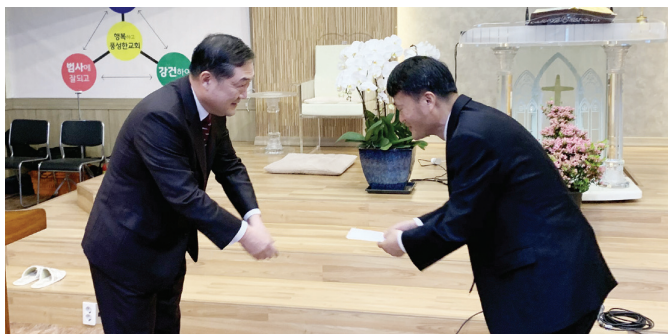
교단 총회(총회장 신재영 목사) 제68차 총회 제12회 임원회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어 세계 각국이 대책에 부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거리두기를 통해 확산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카카오톡 단체톡방에서 지난 4월 20일(월) 오전 11시 카카오톡 회의로 진행되었다.

포항 안디옥교회, 지방회 위해 후원금 전달

영남동지방회 정기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권점식 목사)는 지난 4월 7일(화) 오전 11시 옥토교회(구 순복음 복음산교회)에서 지방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장 권점식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부회장 신홍섭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

자의 성경봉독, 직전회장 이성석 목사의 고 후 1:3-7 말씀을 본문으로 한 '위로가 함께 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고, 증경회장 배진기 목사(교단 증경총회장, 안디옥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후 2부 지방회는 지방회장 권점식 목사의 사회로 개회선언을 한 후 서기 황용식 목사가 회원호명과 전회의록 낭독, 서기보고 등을 하고, 지방회장 권점식 목사의 총무보고 감사 최용운 목사의 감사보고, 재무 권택선 목사의 재무보고, 회계 이순애 목사의 회계보고 등 각종 회무를 처리하였다.

또 새 임원선출을 결의하고 2020년 예산 안심의 및 기타 안건에 대해 토의한 뒤 지방회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특히, 이번 정기지방회에는 포항 안디옥교회 배진기 목사와 교역자들이 참석해 코로나19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복음 전파에 힘쓰는 지방회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달라며 후원금을 전달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임원진은 현 임원이 그대로 유임되었다. △회장 권점식 목사, 부회장 신홍섭 목사, 총무 성기찬 목사, 서기 황용식 목사, 재무 권택선 목사.

새 임원 선출하고 참된 목회자로서 사역 다짐

충서지방회 정기지방회

충서지방회(회장 안흥규 목사)는 지난 4월 14일(화) 오전 11시 양문교회(담임 이종한 목사)에서 지방회를 개최하고 교단과 지방회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이인복 목사(순주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정진학 목사(엘사랑교회)의 기도와 지방회 부회장 김영권 목사(순복음 은혜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요 21:15-18 말씀을 본문으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베드로에게 질문한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의 행적을 면밀히 살펴보면 진정 목회자로서 걸어가야 할 길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지만, 먼저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하여 그의 삶과 자세를 본받음으로써 참 목회자를 그려야 한다"고 선포하였다. 이어 지방회

장 안흥규 목사(한사랑교회)의 헌금기도와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정기지방회에서는 새 임원을 선출하였으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영권 목사(순복음은혜교회), 부회장 이종한 목사(양문교회), 총무 이인복 목사(순주교회), 회계 정진학 목사(엘사랑교회), 재무 오수경 목사(순복음장지교회).

이후 모든 순서를 마치고 양문교회(담임 이종한 목사)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며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 김상운 대표회장 취임

조용묵 목사 영상축사...김 대표회장 "반기독교적 악법 막는데 최선 다할 것"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상운 목사, 이하 총기총)는 지난 4월 20일(월) 계룡 나눔의교회에서 '제13회기 대표회장 이·취임식 감사예배'를 드리며 김상운 대표회장 체제의 시작을 알렸다.

충남지역 15개 시·군 320개 교회가 속해 있는 총기총의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김상운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반기독교적 악법을 막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회장은 "지금 한국교회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사회에서 반기독교적 법안을 통과시키려려 교계의 우려가 큰 상태다. 지금까지 총기총의 중경회장단들은 반기독교적 악법을 막기 위해 힘을 쏟아왔고 나 역시 이 일을 감당하려 한다"면서 "유관선 열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충남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구국의 열정이 큰 곳이다. 이런 토대 위에 320교회 목회자 및 성도와 함께 한마음이 되어 이 나

라와 기독교계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감사예배에는 예정합동 총회장 김중준 목사를 비롯해 각 지역 기독교연합회장들이 참석해 김 목사의 대표회장 취임을 축하했다.

김중준 목사는 설교를 통해 총기총이 김상운 목사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활발히 사역을 펼쳐 복음의 지경을 넓히길 당부했다.

이·취임식에서 김상운 목사(충남기독교총연합회 증경회장), 오정호 목사(대전·세종·충남·충북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임영문 목사(부산광역시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김철민 목사(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는 축사와 권면의 말씀을 전하며 김상운 대표회장의 앞날을 축복했다.

조용묵 목사(은혜와진리교회)는 영상 축사를 통해 총기총이 김상운 대표회장과 함께 큰 발전을 이루길 기원했다.

오정호 목사는 축사를 통해 "김상운 목사

는 실천하는 사람이고 열정이 있는 지도자"라며 "김상운 목사가 충남 지역 교회의 연합에 힘써 연합의 대명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상운 목사는 "나눔의교회의 성도들이 김 목사가 대표회장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든든한 후원을 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한편 총기총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대표회장 김상운 목사(나눔의교회) △상임회장 김중태 목사(청양감리교회) △사무총장 한철희 목사(서천제일교회) △서기 장현원 목사(보배로교회) △회계 박춘산 목사(원불장로교회) △회의록서기 소대영 목사(산울장로교회) △부서기 김유전 목사(홍성중부교회) △부회계 최용재 목사(외산감리교회) △부회록서기 이재우 목사(신금중앙교회) △대변인 정승원 목사(당진평안교회) △정책특보 김용필 목사(전 충남도의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는 제자입니다'

경기지방회 정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전하세 목사)는 지난 4월 6일(월) 오전 11시 동문순복음교회(담임 정광호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신임임원진을 선출하는 한편 한 회기 동안 헌신한 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무 임형순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은금홍 목사의 기도, 서기 안재봉 목사의 성경봉독, 회장 전하세 목사의 설교, 회갑자 목사의 헌금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전하세 목사는 마 28:18-20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는 제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전하고 "주님의 제자들이 스스로 겸비

하여 회개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어야 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경기지방회로 이어져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2020년 신임임원진을 선출했다.

선거관리위원장 임용재 목사의 진행으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은금홍 목사, 부회장 겸 서기 임형순 목사, 총무 안재봉 목사, 재무 겸 회계 조광현 목사.

■ 생명의 말씀 ■



권용덕 목사

· 강원서지방회 중경회장
· 절원순복음교회 담임

희망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평안을 주고,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자살 문제, 청년실업 문제, 청소년탈선 문제, 탈북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은 희망 부재의 산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사람과 좋은날 보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인생의 겨울을 만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1. 희망을 잃지 않는 이유

다윗은 항상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항상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다

는 말씀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형편을 초월해서 마음에 기쁨을 잃지 않고 입술에 찬양을 잃지 않고 희망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항상 주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항상 그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를 보았음이여’라는 말씀은 무슨 일이든 먼저 주님께 아뢰고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 뜻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갓 결혼한 부부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찾아뵙고 문안인사를 여쭙는 것 같이 다윗은 항상 주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그 주님과 의논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하늘가는 밝은 길 영생의 길입니다. 기쁨이 없던 다윗이 이 길을 바라봄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고 희망이 없던 다윗이 이 길을 바라봄으로 희망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며 오늘날의 기쁨을 주며 내일의 희망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2.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

그리스도인은 영원토록 희망을 간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꿈이 꿈틀거리고 꿈을 따라 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기와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다기와 함께 해 주십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를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씨를 땅에 던지 않게 하시며 영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의 길은 돈은 햇빛 같아서 원만한 광명에 나아가나니” “나의 사랑 나의 아여뿐자아일이

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아여뿐 자아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희망에 거하는 삶

희망은 하나님이 주시고 절망은 마귀가 가져다줍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일이고 직업이요, 둘째는 사랑하는 대상이요, 셋째는 꿈이요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바라보면서 희망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알렉산더대왕은 페르샤 원정을 떠나면서 그가 소유한 모든 것 재산 영토 보물들을 나누어주었는데 이때 옆에 있던 부하가 묻기를 “이제 대왕은 무엇으로 사시렵니까?” 대왕은 말하기를 “나는 오직 희망을 가지고 살겠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 것들과 행한 일에 연연하지 않고 더 좋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상급을 확신하고 희망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포드는 못배우고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빨리 달리는 것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고 희망에 거하는 자가 되어 자동차를 만들고 생산해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디트로이트 기업관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포드는 꿈꾸는 자요 희망을 가지고 산다. 그의 내일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과연 주님을 앞에 모시고 영생의 길을 보면서 항상 주님을 만나 뵈옵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확실한 희망의 삶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까? 이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희망에 거하는 삶을 배우게 됨으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단 안에서 세계만방에 희망의 꽃을 활짝 피웁시다.

동 정

임창호 교수, '기독교헌법' 발간



고신대 임창호 교수가 최근 기독교교육학 관련 연구 총목록집 ‘한국 기독교교육학 문헌목록(Ⅱ) 1945-2006’ 후속작이다. 임 교수는 한국기독교교육학회 제36대 회장을 지내고, 현재 고신대 교학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목회자 기도 모임 이어져



목회자들의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이 지난 4월 15일(수) 10번째 기도회를 끝으로 연속 기도를 종료했다. 이날 이정익 목사가 설교 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국에도 멈추지 않고 기도회가 꾸준히 열렸다. 이날 기도회는 서울 종로구 종교교회에서 열렸다.

새로남교회 법적대응 검토



새로남교회는 평생 ‘정도목회, 목양일념’으로 헌신해온 오정호 담임목사에 대해 ‘복음 진리를 붙잡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정신 바짝 차리고 투표하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설교한 내용을 고발한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에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배우 정보석, 아프리카 봉사활동



배우 정보석 씨는 “11살, 13살 어린 나이에 가족 전체의 생계를 책임지는 아이들을 보고, 많이 안타까웠다”며 “아이들에게는 꿈과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도우면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많은 분들이 나눔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언론들, 부당한 교회 공격을 중지하라

최근 우리 사회가 코로나바이러스로 매우 예민해진 가운데, 일부 언론들이 불필요하게 교회를 공격하고 근거 없는 비난을 일삼아 기독교에 대하여 심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부정적 여론을 만들어 가려는 의도가 드러나 매우 개탄스럽다.

4월 7일자 연합뉴스에 보면, 각 종교를 상업적인 목적의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유도하는 제목을 버젓이 달았다. ‘성당은 직업점, 절은 프랜차이즈, 교회는 자영업’ 누가 보더라도 한국의 대표적 종교를 상업적 목적을 위한 단체로 교묘하게 비하하고 있다.

언론은 품위가 있어야 한다. 그라야 할 언론이 국민들의 정신적, 사회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 종교를 ‘장사처’의 험한 모습으로 평가 절하하여 표현한 것은 무슨 의도인가?

그리고는 부제목에서 ‘코로나19에도 왜 일부 교회는 현장 예배 고집할까’ ‘예수와 그리스도 싸우는 개신교단’ 난립도 원인’ 이

란 제목을 달았다. 결국 이 기사는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기자는 이 글에서 기독교에서는 타종교와 다르게 계속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교단의 분열로 인하여, 중앙집권적인 명령체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코로나바이러스가 있는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웃 사람과 생명 존중을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고 썼다.

그러나 기자는 기독교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소설 쓰듯, 자기 몰이경(我境)에 빠져 있다. 우선 기독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부 교회가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단의 명령체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기독교에서 드리는 예배는 타종교처럼 지도자나 수장(首長)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것이며, 이는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즉 기독교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전통이 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이다. 또 이웃사람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는 매우 무지하거나 의도적인 것으로서 불쾌하다.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형식을 바꾸고, 교회 안과 밖을 방역하고 성도들에게 철저하게 개인의 질병 예방 수칙을 시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웃을 미워하는 행위인가?

사실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은 언론들이 만들려는 괴물과 같은 인간상이 아닌, 가장 보편적이고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고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다.

그리고 마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규정하는데, 4월 7일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확진자는 10,331명이다. 그 중에 교회에서 예배로 인

해 감염된 확진자는 알려지기로는 190여 명이다(신천지 등 이단은 빼고) 이는 전체의 1.8% 정도이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예 교회에서의 예배와 집회로 지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집단으로 모이고 활동하는 곳이 교회뿐이라는 것인가?

강남이나 홍대 일대의 클럽에서는 출입자가 장사진을 이루고 밤새워 성업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코로나바이러스와 전혀 무관하다는 말인가? 어느 모임이 더 위험한지는 불분간하지가 아닌가? 연합뉴스가 이런 것은 문제삼지 않는 이유는 뭔가?

그리고 연합뉴스는 교회의 분열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목사의 권력욕, 명예욕, 물욕 등이 오늘날 한국 교회 분열의 주원인’으로 꼽는 것을 떠올리면 비뚤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도대체 무슨 말장난인가? 언론이 고약하고 교묘하게 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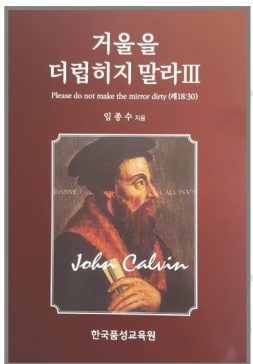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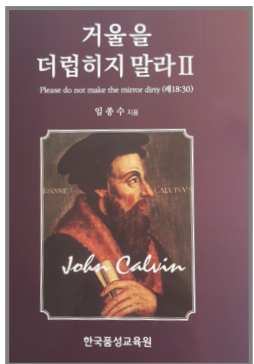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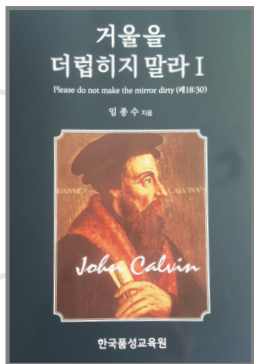
난해도 되는가?

언론의 비열함은 최근 서울의 모 교회 앞에서도 일어났다. 그 교회 담임목사가 구속되어 성도들이 한껏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지지체가 교회에 대하여 위협적인 행적 조치를 시행하면서 오는 불미스런 일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현장을 기다렸다는 식으로 카메라를 들이대고 셔터를 눌러서, 전국에 전파하여 마치 한국교회 전체가 그와 같다는 식의 언론 보도는 조작의 기술로써, 참으로 놀라울 뿐이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한군 때문이란 말도 듣고 있다고 하는 주장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이 역시 악의적인 의도로 본다. 현금은 기독교인들의 자발적인 것으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여도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도 다음번에 예배에 참석해서라도 자신의 종교심을 발휘하는 것이다.

언론의 이 같은 행동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국 기독교계는 연합뉴스가 사회적 불만에 편승하여 종교를 상업적 목적에 의한 저급한 집단으로 매도한 일에 대하여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꿀 수 없는 품성이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분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분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굶,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적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구름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목양
포커스

최형택 목사 // 광양은혜와진리교회, 예하성 총회목회자 평생교육원 자문위원

복음전파와 유튜브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후에 비로소 전파 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 4:17)고 전하셨습니다.

복음(福音)이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진리의 소식이다. 그리고 그 구원의 소식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 즉 전도다.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하는 방법과 마음에 감동함으로 생명을 찾는 자들이 찾아와서 듣는 방법이 있다. 어떠한 방법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방법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1953년 휴전 이후, 사람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경로는 구전(口碑)이나 도서, 신문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었다.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요소를 이 부족하였기에 사경화나 부흥회 같은 전도 집회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큰 복을 사용하였다.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창립되고 부흥 성장하면서 그 전도 방법에 있어, 집을 직접 방문하는 축조전도(逐戶傳道)나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노방전도(路傍傳道) 등 이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한편, 최근 들어 주요(主要)한 전도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튜브(YOUTUBE)는 구글(Google)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다. 기본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댓글을 통한 소통이 가능하여 SNS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유튜브는 동영상을 통한 정보 전달의 강점(強点)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카네고리 안에서 많은 콘텐츠를 공유하며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가전제품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교통과 물류까지 인공지능을 통해 운영하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등을 구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때 2005년에 설립된 유튜브의 효용성을 논하는 것이 매우 늦은 감이 있을지라도 유튜브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여전히 훌륭한 플랫폼이다.

유튜브의 많은 기능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외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번역된 설교 내용을 첨부함으로써 외국인들에게 설교의 내용을 전달하기 용이하며 채널 안에서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각종 기도회, 성경공부 등 많은 콘텐츠를 ‘재생목록’의 카테고리 정리하여 전달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동영상에 재생되는 중에 보이는 카드 기능을 통해 연관 동영상을 연결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풍부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다. 이처럼, 유튜브의 유용한 기능들을 각 교회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복음전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훌륭한 도구인 유튜브를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留意)해야 할 것이 있다.

먼저, 유튜브를 활용하는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교회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복음 전파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전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운영 목적이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를 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 채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더 많은 콘텐츠 배포에 욕심을 내기 쉬워진다. 설교 또는 예배 영상 외에 다른 영상들이 함께 보이면 복음을 전하는 목적에 방해될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그렇기에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설교나 예배 영상 외에 다른 콘텐츠를 올리거나 한다면 다른 채널을 만들어 별개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유튜브는 현재 인터넷 환경에서 매우 훌륭하고 매력적인 전달 매체이지만 목회(牧會)적 관점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영상에 메시지를 담아 전달하는 방법은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전도하는 방법이나 교제 역시 반드시 필요한 방법이다. 율법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모학전생의 역할을 하였듯이 유튜브 역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징표의 역할을 함에 있어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이 절대적인 위치에 놓이거나 목적의 지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유튜브를 통한 복음 전도방법이 훌륭하고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유일하고 절대적인 방법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통해 복음을 듣고 전하는 것이 편한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대면하여 그 심령이 위로함을 받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기 원하는 사람도 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한 가지 방법을 고수하신 것이 아니라 같은 질병을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하셨듯이 복음을 듣는 불신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현재 우리는 어찌보다 더 빠른 통신 속도를 추구하며 4차 산업혁명을 논하는 시대,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직업을 대체해 나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유튜브는 대면하여 전도하는 방식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어 줄 것이다.

이렇듯 복음전도의 유용한 방법인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유튜브는 복음전도의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복음전도의 수단인 유튜브를 변함없는 복음의 진리와 구원의 길을 전하는 도구로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세계선교

김성태 목사 // 총신대학원 선교학 교수,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장

21세기 고난 받는 교회의 실상과 한국 교회의 선교사명 ①

국제오픈도어선교회(Open Door International)는 매년 세계교회박해지수(World Watch List)를 발표합니다. 이 통계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공신력 있는 통계수치입니다. 2020년도 1월 둘째 주에 전년도 고난받는 교회와 교인들이 속해 있는 상위 50개 국가들의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을 가장 심하게 박해하는 1순위 국가에서 50순위 국가까지 발표합니다. 이 통계수치는 이전의 박해 수치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나타내 주며,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들의 실태를 한국교회에게 보여줍니다. 해가 갈수록 뚜렷하게 박해 수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50개국 순위안의 박해받는 교인들이 2억 1천 5백만 명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전체 교인들 6억 5천만 명 가운데 극심한 박해에 노출된 교인들의 수이고, 비율은 전체 교인들 중에 30퍼센트 정도입니다. 금년도의 수치는 2억 6천만 명으로 높아졌습니다.

폴 마셜(Paul Marshall)은 그의 저서 ‘거룩한 피가 부른다(Blood Out)’에서 초대교회와 교부시대의 순교자보다 더 많은 순교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배출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국제오픈도어선교회의 세계박해지수 수치는 마셜의 진술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박해지수가 높게 나온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새로운 종교사부조례를 만든 이후에 점차 예국교회뿐 아니라 국가에 등록되지 않고 있는 가정교회들을 심하게 핍박하고 있고, 고도로 발달된 디지털 인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교회와 교인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인도의 국유 힌두교 정당인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인민당(BJP)이 계속 집권을 잡은 이후에 인도 전역에서 반개종집회를 통고시키려고 하며, 교회를 심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아프리카의 사헬 지역에 속해 있는 나이지리아, 말리, 중앙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북부,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차드 등지의 나라들 가운데 무장 이슬람 세력들의 교회에 대한 공격과 핍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넷째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아시아에서 팽창하고 있고, 이들 세력들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필리핀 남부지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연속적인 테러와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수효를 76%으로 보면 기독교인의 수효는 25% 정도이고, 그중에 극심하게 박해를 받는 교인들이 2억 6천만 명과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교인들이 8천여 만 명으로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15퍼센트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세계교회박해지수의 특징을 분석해 보면 1순위에서 10순위까지 거의 동일한 국가들이 매년 조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6순위에 있던 수단이 7순위 국가가 되고, 에티오피아가 6순위에서 7순위로 비전 되었습니다. 저희와 직접 관계된 국가로서 북한이 2002년부터 19년

째 1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특기할 만한 일은 인도가 처음 10순위 국가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1순위부터 10순위 안에 있는 국가들로서 8개의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이들 나라들은 아프가니스탄(2위), 소말리아(3위), 리비아(4위), 파키스탄(5위), 에리트레아(6위), 수단(7위), 예멘(8위), 이란(9위) 등입니다. 10위는 유일한 힌두교 국가로서 인도입니다. 전체 50순위 안의 국가들을 살펴보면 이슬람국가들이 39개국이고 공산주의 독재 정권 국가들이 4개국이고, 힌두교 국가들이 2개국이며 불교국가들이 3개국이고, 기타 반군 및 독재 정권 체제의 국가들이 2개국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요인들의 유사한 특징들을 유형별로 구별하여 분석하려 합니다. 이들 나라들에 대한 한국교회의 선교책무가 무엇인지 어떻게 고난받는 교회와 교인들을 도와야 할지를 논하려 합니다.

1. 박해유형별 특징분석

1) 정치적으로 독재정권이면서 국가적 특정 이념을 앞세워서 어떤 종교적 가치도 인정하지 않으며, 주로 기독교인들을 집중적으로 핍박하는 경우입니다.

이 그룹에 속해있는 나라들로 가장 대표적 국가가 북한이며, 동구권의 일부 국가, 인도차이나의 몇 나라 등이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회는 그 역사가 스코틀랜드 정교회 소속 존 로스 선교사의 활동시기부터 시작하면 140년이나 됩니다. 호레이스 언더우드 선교사의 활동 시기보다 무려 7년이 앞섰습니다. 비록 공산화가 되어 7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하에서 활동하는 1세대가 뿌리가 되어 신앙을 전수 받아 지금까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기독교인들이 최소한 10만 이상 되며, 기독교인으로 신분이 적발되어 산간벽지, 오지로 추방되거나 노동수용소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기독교인들이 최소한 10만 이상이 됩니다.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로 마진 굵직함을 피하고 생존을 위해 중국을 오고 간 탈북자들이 대략 100만 명에 달하는데 그중에 3만 4천여 명이 한국에 정착하고, 중국에 머무르는 북한 주민들이 어린자녀들까지 포함해서 대략 10만 이상이 됩니다. 그들 중 대부분이 중국에서 현지 조선족 교회나 한국선교사들을 통해 도움을 받는 중에 복음을 접하게 되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의 수효가 최소한 7만 이상 됩니다.

또한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숫자가 순교의 피를 흘리고, 강제노동수용소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지 그 숫자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017년부터 금년까지 공신력 있는 내부 소식을 통해 확인한 것은 최소한 50여 명의 교인들이 비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고, 백여 명이 무기징역을 받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으며, 수백 명이 수년의 형을 받고, 강제노동수용소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잔인한 핍박이 기독교인들에게 기해 지지만 북한이나 다른 지역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로 신앙인으로서 절대 뒤로 물러서거나 위축되지 않는 공동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근본주의 이슬람이 항행하는 지역에서 국가적 차원이나 혹은 과격한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이 집중 공격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지역과 사하라 사막 남부 사헬 벨트 지역(세네갈 북부, 모리타니 남부, 말리 중부, 니제르 남부, 차드 중남부, 북부 나이지리아) 그리고 리비아, 이집트 등이 있습니다. 결과 연안과 중동지역 국가들로는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등이 있습니다. 북부 나이지리아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인 보코하람(Boko Haram)이 기독교인들을 집중 공격하여 지금까지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하였고, 2014년에만 791명이 순교하였습니다. 순교가 일어난 지역들은 북부 나이지리아의 조스, 아부자, 카두나와 바우지 등입니다. 2019년도에는 북부의 플라니 유목 모슬렘 종족들이 기독교인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남부 수단이 2016년도에 독립하였지만 이슬람 정권이 자리 잡은 북부 수단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당카, 누에르, 실록, 누바족 출신 기독교인들 약 2백만 명이 순교하였습니다.

북부 수단지역 중심으로 지금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은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결과 연안과 중동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조직적으로 이루어 지기에 이를 간단히 못한 기독교 이민자들의 수효가 나날이 증가하므로 그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의 공동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라크에는 1991년까지 약 1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카르타 피와 수나피 민병대들의 끔찍한 박해로 인해 거의 25만 명이 채 못 되는 기독교인들만이 남아있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베를레헴의 85%는 기독교인들이었으나 이제는 15%도 안 되고, 예루살렘은 1953년에 53%가 기독교인들이었으나 지금은 2%도 못 됩니다. 이집트는 아랍의 봄의 여파로 독재자 무바라크가 하야했으나, 모슬렘 형제단의 수장인 무르시가 정권을 잡으므로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강화되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조직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현재 무르시는 군부 쿠데타를 통해서 축출된 상황입니다. 시리아는 아사드 정권의 폭정으로 일반 백성들이 봉기하여 내란이 일어난 상태이나 반 아사드 세력이 이슬람 근본주의와의 연합으로 이슬람 신정국가(Islamic State) 운동을 벌이면서 기독교인들을 주요 제거 대상으로 삼아서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거나 수백 개의 교회, 수천여의 가옥들이 파괴되고,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강탈당하였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참전으로 이슬람신정국가를 세우려는 세력은 축출 되었으나 여전히 근본주의 이슬람세력이 잔존하므로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공격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힐링네이처가 생산한 천연 전나무제품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전나무에서 직접 추출한 에센셜 오일에 허브를 배합하여 만든 천연 전나무 제품입니다.



① 전나무 맑은호흡산책길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오일, 청호오일, 선택리향오일, 유칼립투스오일, 페퍼민트오일, 라벤더오일, 티트리오일, 구주소나무오일, 유향유,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생강오일, 계피유
- 사용법 : 가슴과 호흡이 답답할 때 가슴에 직접 분사하거나 공기중에 뿌려줍니다.

② 전나무 참편향나무마사지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독활오일, 상지오일, 페퍼민트오일, 로즈마리오일, 라벤더오일, 유칼립투스오일, 두송열매오일, 꽃박하오일, 레몬그라스오일, 캐도미일오일, 생강오일, 계피유, 선택리향오일, 윈터그린오일
- 사용법 : 어깨, 종아리등 등치고 통증이 있는곳에 뿌린 후 마사지합니다.(온증전후/운전시/수험생/컴퓨터적업자)

③ 전나무 에센셜 스프레이 (100ml)

- 원재료 : 전나무위더, 전나무오일, 페퍼민트오일,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 사용법 : 두피에 뿌린후 골고루 마사지합니다.

④ 전나무 퓨어 에센셜오일 (10ml)

전나무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 100% 로제 마유과 물을 정화합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 사용법 : 한두 번 흔들어 손목 안쪽, 목, 옷 상의, 베개 등에 한 두방울을 사용합니다. 따뜻한물에 2~3방울 섞어 족욕이나 반신욕시 사용합니다. 캐리어오일에 1~2방울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⑤ 전나무 숲 블랜딩오일 (10ml)

전나무오일과 허브오일을 블랜딩하여 만든 천연오일입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라벤더오일, 페퍼민트오일, 아틀라스시더우드오일, 유칼립투스오일, 구주소나무오일, 유향유
- 사용법 : 한두 번 흔들어 손목 안쪽, 목, 옷 상의, 베개 등에 한 두방울을 풀어뜨려 사용합니다. 따뜻한물에 2~3방울 섞어 족욕이나 반신욕시 사용합니다. 캐리어오일에 1~2방울 섞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⑥ 맑은호흡 캔들 (130g)

최고급 천연소이왁스에 전나무오일을 첨가하여 사용시 전나무숲갈에 있는듯한 피톤치드를 선사합니다.

- 원재료 : 소이왁스, 전나무오일

⑦ 전나무 오리자날 비누 (100g)

보습성이 뛰어난 코코넛오일과 세아버터베이스에 전나무오일과 전나무분말을 첨가하여 부드럽고 촉촉한 사용감으로 만족을 드립니다.

- 원재료 : 코코넛오일, 세아버터, 전나무오일, 전나무분말

⑧ 전나무 센서티브 비누 (100g)

민감한 피부에 적합한 라벤더오일, 캐도미일꽃오일등을 첨가하여 순하고 부드러운 사용감으로 만족을 드립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라벤더오일, 캐도미일꽃오일, 세아버터, 마카데미아넛오일등

⑨ 젤렌케어 립밤 (15ml)

입술이나 건조해지기 쉬운 신체 어느부위든지 발라주어 부드럽고 촉촉함을 입시킵니다.

- 원재료 : 전나무오일, 호호바씨오일, 스위트아몬드오일,아보카도오일, 비즈왁스, 자몽껍질오일, 오렌지껍질오일등
- 사용법 : 입술, 손, 발, 각질부분등에 발라줍니다.

⑩ 전나무위더 (180ml)

전나무 오일에서 추출한 100% 전나무 위더입니다.

- 원재료 : 전나무위더
- 사용법 : 화장실, 부엌등 향균이나 향취가 필요한곳에 뿌려줍니다.

■ 힐링네이처의 이로운 전나무 제품은 화학물질을 일체 첨가하지 않은 순수 천연제품입니다.

(주)힐링네이처농업회사법인 / 경영지원부 부장 권영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송정길 340-50 TEL. (033) 333-2018 FAX. (033) 334-2018 / www.healingnature.biz

제36차 정기지방회, '여호와께 맡기라'

전북서지방회 정기지방회

전북서지방회(회장 심혜원 목사)는 지난 4월 20일(월) 임마누엘교회(담임 심혜원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개최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양희철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서기 김훈배 목사의 기도 중

경회장 김철성 목사의 시 37:5-6 말씀을 본 문으로 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제목의 설교, 지방회장 심혜원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2부 정기지방회에서는 각종 회부를 처리

하고 지방회 새 임원으로 회장 심혜원 목사, 총무 양희철 목사, 서기 김훈배 목사, 재무·회계 박운석 목사를 선출하였다.

모든 순서를 마치고 지방회 회원들은 임마누엘교회에서 준비한 풍성한 애찬을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갖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남일공예



50년 전통의 남일공예입니다.

남원 전통상, 목기, 교자상, 찻상, 병풍 판매합니다.

본 제품들은 남일공예에서 직접 생산하여 도매로 판매합니다.

좋은 원목으로 모든 공정을 남원에서 직접 제작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상 주문제작

생산자 직거래라 비용이 저렴합니다



오시는 길 전북 남원시 숲고개로 219(여현동 470-16)

상담전화 063-632-3332, 8838 / 010-3651-7838 택배판매 가능



사단
법인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본부장

실무회장

연합회장

상임회장

사무총장



진동용 목사 이두영 목사 박노섭 목사 김병완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안홍규 목사

고문
자문위원
대표회장
본부장
상임회장
공동회장

지도위원

부회장

사무총장

협동총무

후원회 회장

후원회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윤 목사, 김형태 목사, 이영한 목사, 임기석 목사, 연용희 목사
이명수(국회의원), 강훈식(국회의원), 오세현(아산시장), 김영애(아산시의회), 김항구(아산경찰서장), 아산교육장

진동용 목사

이두영 목사

실무회장 박귀환 목사

사무총장 안홍규 목사

최규명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노섭 목사

진동용 목사, 이두영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도승현 목사, 임은석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훈화 목사, 박노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최문기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손혁 목사

박차영 목사, 이광로 목사, 서석웅 목사, 방연식 목사, 박판용 목사, 최성덕 목사, 김병철 목사, 표의성 목사, 김관호 목사, 김득수 목사

박봉순 목사, 송화섭 목사, 이재구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성 목사, 최순식 목사, 김완진 목사, 차추병 목사

김병완 목사, 홍석웅 목사, 임정대 목사, 이덕희 목사, 윤경현 목사, 김성권 목사, 정병환 목사, 장현원 목사, 곽일귀 목사, 유현희 목사

고영기 목사, 이재두 목사, 김주섭 목사, 김현준 목사, 박덕수 목사, 신동철 목사, 이기언 목사

안홍규 목사

총무 오세환 목사

서기 정진학 목사

회계 김이레 목사

재무

곽인숙 목사, 이은혜 목사

회원

아산시 400교회

박성민 목사, 이석주 목사, 이춘호 목사, 임해성 목사, 정수희 목사, 정미숙 목사, 권필희 목사, 이은혜 목사, 곽인숙 목사, 홍은식 목사, 김희석 목사

정해곤 장로

배성한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좌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홍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상 장로, 황의덕 장로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장섭 장로, 이창식 장로, 광웅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운 장로, 박노완 장로

김현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택 장로 (외 각 교회 장로)

후원계좌

국민은행 450901-01-430312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내역 총괄전문의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대표고문	교단총회장	지도고문	지도고문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상임총무
									
조용목 목사 정적위원장	신재영 목사 총회장	정부용 목사 대림별영교회	엄기철 목사 은혜와천양교회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양문교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원교회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오세준 목사 순복음참좋은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부흥사회에서 **완전 자비량**으로 부흥회를 인도해 드립니다.

2020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대표고문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직전총회장	총회장	지도고문	지도고문	증경회장	회장	상임부회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상용 목사 (성주중앙순복음교회)	유봉수 목사 (은혜와사랑의교회)	전동용 목사 (서소영교회)	김용택 목사 (영동제일교회)	임종단 목사 (진주은혜와진리교회)	최광목 목사 (일산순복음교회)	이창재 목사 (진주제일교회)	김인규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김인한 목사 (정신교회)	김양인 목사 (복양제일교회)	임용재 목사 (산정리순복음교회)	신재영 목사 (세길교회)	정부용 목사 (대림별영교회)	엄기철 목사 (은혜와천양교회)	김희태 목사 (간현교회)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양문교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총무	상임부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원교회)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임용재 목사 (연천순복음중앙교회)	오세준 목사 (천안사랑교회)	황용연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김병목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정석현 목사 (평강교회)	백연자 목사 (북동순복음교회)	조병희 목사 (기정순복음교회)	김종연 목사 (의정부은혜교회)	오세준 목사 (순복음삼촌교회)	조은혜 목사 (순복음빛교회)	정광호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윤혜영 목사 (순복음주천이교회)	조선남 목사 (대림별영교회)	김병호 목사 (순복음형북한교회)	박홍달 목사 (은성사랑교회)
실무총무	실무부총무	실무부총무	실무부총무	서기	재무	회계	감사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성기찬 목사 (동문순복음교회)	김남수 목사 (빛은빛교회)	김현욱 목사 (형북한신교회)	김병주 목사 (순복음일방교회)	임혜순 목사 (순복음아멘교회)	조규수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우광택 목사 (해미루대평교회)	최남성 목사 (동경순복음교회)	윤성수 목사 (진주은평교회)	권택희 목사 (순복음아은교회)	이희순 목사 (진주순복음우리교회)	홍현자 목사 (사랑의평화교회)	정관무 목사 (순복음빛교회)	최승수 목사 (순복음스밍교회)	주창민 목사 (순복음별영교회)	배용관 목사 (순복음진원교회)	육보애 목사 (소망농아교회)	기호선 목사 (괴산순복음교회)
정회원	정회원																
																	
정예사 목사 (예수향기교회)	이형은 목사 (은혜로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회 장 김기진 목사 HP : 010-4112-9313
 | 문의 | 상임총무 오세준 목사 HP : 010-5041-3411

CTS 장애인의 날 특집 장애극복 간증

기독교TV 내가 매일 기쁘게 제작-인내와 사랑 전달

CTS기독교TV(회장 감정철)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특집 '내가 매일 기쁘게(진행 최선규, 감지선)'를 제작했다.

20일(월)에는 주보라의 집 원장 김광식 목사님과 부원장 이지혜 사모의 간증이 방송되었다.

30년 넘게 가족 대신 중증장애인들을 섬기고 있는 주보라의 집은 1989년에 서울 보문동에서 시작해 현재 30여명의 중증장애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김광식 목사님과 이지혜 사모의 간증을 방송으로 전했다.

21일(화)에는 프리즘 앙상블에 이다영, 고남주 모녀가 출연했다.

방송은 두 모녀의 가야금병창을 시작으로 딸의 장애를 극복하고 가야금을 배우게 된 사연을 나누었으며 태어날 때부터 미숙아로 태어나 발달장애를 갖게 된 다영이를 인내와 사랑으로 돌본 어머니의 이야기를 방송에서 전달했다.

그리고 22일(수), 23일(목)에는 시력을 잃고 영의 눈을 뜨게 된 류한주 목사(수원 대영교회)편이 방영된다. 젊은 나이 시력을 잃고 자살까지 생각했던 류 목사의 간증이 1부에 방영되었다.

그리고 2부에는 류 목사 아내 김윤숙 사모와 함께



출연했다.

예수를 믿기 전 기독교를 비판하는 책까지 쓰려

했던 류한주 목사의 묵회 여정에 눈과 발이 되어준 사모의 간증이 함께 방송되었다.

마포봄데이케어센터 치매 및 독거어르신 뷰티서비스 실시

월드뷰티와 신한대, 소외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 섬겨

국제뷰티구호개발 NGO (씨월드뷰티원즈(WBH, 이사장 장한일)와 신한대학교 뷰티재능나눔동아리인 신한뷰티서포터즈(SBS) 최에스터 교수는 지난 4월 18일(토) 뷰티서비스 업무협약(MOU 2019.4.6)을 맺

은 마포구 마포봄데이케어센터의 치매 및 소외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뷰티서비스를 실시했다.

지금까지 매일 뷰티서비스를 실시하다가 코로나

19바이러스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의미로 중단했다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뷰티서비스를 실시했다.

최에스터 교수(뷰티헬스사이언스학과)는 "어렵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인 뷰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결과 위생관리, 자기자신을 가꾸는 심리적 행복을 전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장한일 WBH 이사장, 장민욱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또한 (사)월드뷰티원즈(WBH)는 행정안전부 승인 사단법인으로서 서울역 노숙자와 독거노인,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뷰티서비스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전문 뷰티서비스 기관이다.

(사)월드뷰티원즈는 K-뷰티 헤어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네일, 화장품 등 5대 분야의 전문 교수와 산업체 기관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재정부 승인 지정기부금 단체와 1365 자원봉사 인증기관으로 후원 및 뷰티자원봉사자 신청을 받고 있다.

문의 02-706-5333, wbhngo16@gmail.com

사단법인 월드뷰티원즈 이사장

장한일 (010-4604-0765)



신간 안내

거짓 복음

교회를 위협하는 사탄의 8가지 거짓말



사탄은 거짓말과 왜곡의 천재다. 그의 거짓말은 "먹음직"하고 "보람적"하다. 누구라도 빠져들 만큼 매력적이다. "난 정통 교회에 다녀서 괜찮아," "난 모태신앙이야. 성경공부도 많이 했어"라는 자부심은 통하지 않는다. 사탄이 하위를 유혹한 곳은 모든 것이 완벽한 에덴동산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본서는 그와 같은 사탄의 거짓말을 폭로하여 성도들이 바른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돕는 책이다. 진리처럼 들리는 비진리를 들추어내며, 에덴동산의 하와처럼 무너지지 않고 광야의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하는 법을 설명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사탄의 속임수를 간파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저자/역자: 제러드 월스/황영광 | 출판사: 생명의말씀사 발행일: 2020-04-01 | (146*210)mm 288p | 판매가: 16,000원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늘날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현재 창궐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금 한국교회에는 예배와 관련하여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기독교 신앙생활의 중심인 주일예배 회집마저 중지되어 여러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고민과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살펴보고서 전염병을 만난 상황에 대해 성도들에게 성경적 교훈과 위로로 주는 것을 목표로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다. 과거의 사건을 통해 성경적 지혜와 위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정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 안영준 외 17인 | 출판사: 도서출판 다함 발행일: 2020-04-23 | (152*225)mm 264p | 판매가: 13,000원

부활

죽음의 두려움이 영원한 소망으로 바뀌는 시간



부활, 죽음의 공포를 너머 영원을 바라보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로 떨고 있는 지금, 우리가 불우해야 할 건 '부활의 믿음' 뿐이다. 이 책은 TV 특집다큐멘터리로 방영되었던 '부활'에 다 담지 못한 이야기를 현장 사진과 함께 실었다. 한두의 성지 갠지스강, 사도 도마가 순교한 인도 첸나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지하무덤 카타콤, 사도 베드로의 전승이 남은 교회와 사도 바울의 순교터까지 부활의 증인들이 남긴 거룩한 흔적을 따라갔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졌기에 죽음 앞에 담대했던 그들이 바라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부활' 여정의 동행이며 이 책의 공저자인 이용규 선교사와 김상철 감독은 삶과 죽음, 부활에 대한 내밀한 깨달음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 저자: 이용규, 김상철 | 출판사: 규장 발행일: 2020-04-20 | (132*203)mm 248p | 판매가: 13,000원

크리스천의 결혼생활

(Living in a Godly Marriage)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창조 규례이며,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주된 원리로 한다. 그래서 결혼은 다른 어떤 규례들보다 더 아름답고 존귀하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거나, 그 의미를 안다고 해도 곧 재정이나 사회적 지위, 인격적 친밀함만을 중시하는 현실적 상황에 순응해 버린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한 결혼은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참된 연합으로 한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결혼의 참 모습이다. 결혼의 존귀함과 목적, 결혼이 주는 은택, 그 안에서 가까이 짝지어야 하는 상호 의무들을 알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다. 저자/역자: 조엘 비키, 제임스 리벨/정중하 | 출판사: CH북스 (크리스천다이제스트) 발행일: 2020-04-13 | (150*225)mm 364p | 판매가: 14,000원

www.dkfh.kr

산청한방가족호텔이 지리산을 품다!

For your Healthy Life

우리나라의 영산인 지리산 자락의 산청세계전통약엑스포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 내에 위치한 고품격 가족호텔입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산, 숲, 계곡 그리고 세계전통약엑스포 테마가 있어 더욱 즐거운 가족호텔.

전통한방, 기, 명상 등의 체험과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산청의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과 약선 음식을 통해 참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몸과 마음의 Healing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이상의 힘을 모아 한분 한분의 고객만족을 위하여 진심어린 마음으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산청한방가족호텔은 지난 1월 25일(금) 한의원, 카페,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이 추가로 완공하여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교단 부산지방회 증경회장 한명진 목사와 교영권 목사 등이 참석하여 축복하고 발전을 기원했다.



필봉동/왕산동(스탠드A,B/온돌, 단체룸)



허준동(원룸/투룸)

예약문의 055)972-7000

52229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479번길 43

학생과 지역교회 돕는 폭넓은 지원 전개

서울신대, 지역목회지원센터 이전 및 PRS연구소 개원



서울신학대학교 지역목회지원센터(소장 박삼경)는 지난 4월 17일(금) 오전 10시 우석게스트란 1층에서 지역목회지원센터·목회현장훈련센터 이전 및 PRS연구소(Institute) 개원식을 거행했다.

이전 및 개원식에는 황덕형 총장을 비롯하여 조기연 부총장, 이길용 기획처장, 김진경 기획처장, 조성호 학생처장, 한수정 교육혁신원장 등 교수 및 직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목회지원센터와 목회현장훈련

센터, PRS연구소(Institute)를 한 공간에서 운영하며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황 총장은 “이번 개원식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제공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아울러 교단 목사님을 비롯한 Local(지역) 교회에 도움을 주는 구심점으로서의 허브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아이소이, 기아대책에 장학금 등 기부

“여성 가정과 자녀들의 핑크빛 내일을 응원합니다.”

국제구호개발NGO ‘희망전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천연유래 화장품 브랜드 ‘아이소이(isoi)’와 함께 여성 가정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아이소이 기대펀드’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기대펀드 장학생은 아이소이 회사가 위치한 광진구

와 기아대책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으며, 기아대책과 아이소이는 장학금 300만 원과 함께 노트북을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아이소이 이진민 대표는 “여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10년째 기업을 일구고 있다”며 “홀로 훌륭하게 아이들을 키르는 여성 가정들을 응원하고, 또 그들의 자녀 역시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장학금 전달 취지를 밝혔다.

장학생 대표인 유현지 학생은 “따뜻한 응원과 격려 덕분에 두려움보다는 기대로 꿈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이소이 이진민 대표는 기아대책 고액 기부자 모임인 ‘필란트로피클럽’의 회원으로서, 2013년부터 기아대책을 통해 국내외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나눔에 꾸준히 동참해 오고있다. 이번 장학금 역시 대학 진학으로 교육비가 필요한 여성 가정의 자녀 10명을 선정해 수여했다.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인트도아카데미원장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본 예수님의 음성



박영수 목사

작년 12월초 중국 후베이성 우한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초기에는 지역적인 폐렴으로 시작되었지만 중국을 넘어 아시아와 유럽과 미국을 지나 4월 14일 현재 204개국으로 확대되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에 따르면 확진자만 200만이 넘었고 사망자가 계속 늘어 11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1월 30일을 기점으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팬데믹 pandemic)를 선포하였다.

더 암울한 소식은 이 세계적 전염병이 질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국제무역의 문을 파괴시켜 세계경제가 붕괴되고 있으며 전 세계 최대의 쌀과 밀 생산 국가인 베트남과 러시아가 자국 식량 해외수출금지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인해 5월경에는 전 세계 식량대란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미 CNN은 보도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환율전쟁이 겹치고 있으며 미국 셰일가스분제로 러시아와 사우디와 멕시코의 원유분쟁까지 겹쳐 전 세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초유의 사태로 혼돈 속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 속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한다.

첫째, 이번 총체적 사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임을 알아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삼분지 일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삼분지 일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삼분지 일은 내가 사방에 홀로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들리라”(렘 5:12) 이 말씀은 남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김으로 멸망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다.

이와 같이 바이러스의 시초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 한국과 일본, 유럽과 미국, 전세계로 확대된 것은 인류가 과학과 종교와 철학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떠나 받는 징계, 심판, 경고의 음성임을 알고 깨달아 회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제림의 징조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눅 21:11)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라고 질문한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답변이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 나타난 징조들은 성경에 예언된 제림 징조들이 연속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적 근거는 무화과나무 비유 말씀과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마 24:32-34, 계 3:14-22)로 물론 과거에도 지진, 기근, 온역이 있었지만 과거 재난과 다름을 알 수 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의 모든 징조는 예수님 제림 직전의 사건임을 깨달아 신앙에 긴장의 끈을(마 25:1-46, 었 6:10-20) 풀지 말아야 할 것이다.

셋째, 제림 전국복음을 전하는 참교회가 되라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마 25:1-13, 딤후 4:1-8)

마태복음 25장은 등과 기름 비유 말씀인데 기름은 성령(고후 1:21-22)을 예표한다. 종말이 임박한 이 시대 성령충만함을 받아 세상에 복음의 빛을(요 8:12) 나타내라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이다.

지금 전 세계 인류 앞에 당면한 코로나바이러스는 중대한 사건이요, 공포이다. 앞으로의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같은 경고이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림이 가까운 이 시대 우리는 깨달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앞에 나태함과 교만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계 11:1-3) 기도과 말씀으로 무장하여 복음을 전하며(렘 5:42), 예수 중언의 삶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어(눅 21:34-36)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031)592-1691, 010)3730-2573

‘2020부활절연합예배’ 부활의 영광 찬양

부활절연합예배 헌금은 코로나19 피해 회복 위해 전달

2020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대회장 김태영 목사)는 지난 4월 12일(주일) 오후 3시 새문안교회에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눅 24:35, 46-49)’라는 주제와 ‘부활의 영광! 세상의 평화!’라는 표어 아래 70개 교단이 연합해 드리는 올해 부활절연합예배를 드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한국교회가 부활신앙을 회복해 부활의 삶을 살도록 촉구했다.

또한 부활, 영생, 천국의 소망을 세상에 전파해 초감동시대에 평화를 선포하고, 교회사회의 회복으로 이웃에게 칭찬 받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메시지에 충실한 설교와 기도, 선언을 담아내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평안을 선사한다.

특히 올해 부활절연합예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초청된 인사들(150명)만 참석하도록 했다. 또 초청자들을 코로나19 안전 지침에 맞춰 안내되어진 좌석에만 착석케 하고, 참석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참석자 비표를 배분해 혼선이 없도록 했다.



예배는 대회장 김태영 목사(예장통합 총회장)의 대회사, 새문안교회 중장단의 특별찬양, 상임대회장 김중준 목사(예장합동 총회장)의 설교, 꽃동산교회 솔리스트의 봉헌송, 상임대회장 류정호 목사(기성 총회장)의 축도 순으로 드러졌다.

한편, 이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 조직은 △대회장

김태영 목사(예장통합 총회장) △상임대회장(교단 가나나순) 윤보환 감독(기감 감독회장직무대행), 류정호 목사(기성 총회장), 윤재철 목사(기침 총회장), 채광명 목사(예장개혁 총회장), 신수인 목사(예장고신 총회장), 황형식 목사(예장대신 총회장), 장종현 목사(예장백석 총회장), 김중준 목사(예장합동 총회장) 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4월 17일 ‘제1회 여성장애인의 날’

인식개선과 차별·폭력 예방 및 근절 운동 전개 위해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한여장)은 창립일인 지난 4월 17일(금) ‘제1회 여성장애인의 날’로 제정하고 선포했다.

여성장애인의 날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운동과 여성장애인 차별·폭력 예방 및 근절 운동을 전개하는 취지를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전국 14개 지부 및 회원단체들과의 다양한

소통과 연대를 통해 조직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에서 여성장애인의 날을 통해 여성장애인 인권 운동 확장에도 힘을 신는다.

2006년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순회교육’을 시작으로 저소득·저학력 여성장애인 기초학습 및 인문교육, 사회참여 교육을 통해 여성 장애인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온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여

성장애인 맞춤형 사업 개발 및 발전에 있어서도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

여성장애인의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을 확장해 여성장애인의 전문기술 습득 기회를 열어주고, 당당히 사회의 구성원으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감과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염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 예방
7. 헛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양치로 입안의 위생을 지키자!

500ml

20개들이 20,000원

500ml

30개들이 30,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20학년도 산·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한 명 집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최 정 식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학장 김 상 용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폐활성물질

-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위실험)

(*고려대학교 손웅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폴린(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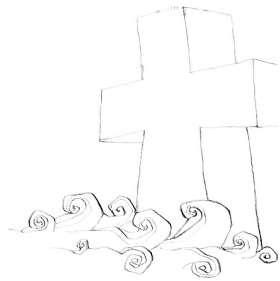
010-2731-5594, 010-9884-5594

제작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초대시

이제인 // 은혜와진리교회 장로

사흘 길을 가는 믿음



무거운 발걸음 재촉하며,
무너져 내리는 마음 애써 달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친척 아버지집을 떠나온
그때에도 지금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둘러 길을 나섰나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오 하나님! 마음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비수처럼 꽃히는 아들의 불을 믿음으로
감싸 안고……
“아들아, 번제할 어린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사흘 길 가는 동안 뒤도 돌아보지 말고,
쉬어 가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순종의 풋대를 향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신 하나님만 믿고 가리라.

그 순종, 그 믿음 저에게도 주옵소서.
사흘 길을 가더라도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훗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정녕 알곡 되어 남게 하옵소서!



주님, 성경 속의 그 믿음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민족복음화협의회 제1차 준비 모임 개최

이사장 이능규 목사, 대표총재 김진태 목사, 대표회장 육수복 목사 내정

민족복음화협의회(대표회장 육수복, 이하 민복협)는 지난 4월 18일(토)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1차 준비 모임을 제1부 말씀의 시간, 제2부 기도의 시간, 제3부 합심기도회, 제4부 환영의 시간 순으로 개최했다.

민족복음화협의회 정관 서언에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는 1977년 ‘77민족복음화대사회’를 치르고 신현균 목사를 중심으로 17개 교단 3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발족한 초교파 단체이며, 국내 7천만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설립되어 연합부흥성회를 통한 성령부흥운동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 그 정체성을 ‘민족복음화협의회’를 통하여 계승하며 조직을 정비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무총장 백만기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제1부 예배에서 대표회장 육수복 목사의 대표기도, 지도위원 이재운 장로의 성경봉독, 채연희 권사의 특송, 대표총재 김진태 목사(주님제일교회 담임)가 요엘서 1장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아느냐?’라는 제목의 설교, 부회장 장신희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 여성총재 손덕목사가 헌금기도했다.

김 목사는 설교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집대로, 욕심대로, 미움대로 살아오고 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닌 행위에 불과하다. 죄악된 습관을 고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지키며 순종하자”

고 강조했다.

제2부 기도의 시간은 백만기 목사의 사회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총체 환영을 목사가,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총체 남보석 목사가, ▲기독교 기관과 부흥사 단체를 위하여 총체 김기성 목사가, 민족복음화협의회 조직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총체 이선규 목사가 각각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3부 합심 기도회는 본부장 한정수 목사의 인도로 △주여! 한 민족을 살려주소서 △주여! 한 국교회를 살려주소서, △주여! 민족복음화협의회를 살려주소서, 란 주제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합심기도를 하였다.

사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해야

기저질환이 심각했던 한국경제에 코로나 사태가 덮쳤다. 실업 대란이 시작되었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공포가 물려들어왔다. 세계 대다수의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한 상태이고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는 더 심각하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하늘길이 대부분 막히면서 고사위기에 처한 항공사들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정리하고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현실화되고 있다. 경쟁적으로 내뱉던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 살리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와중에 안보는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성능을 개선시켜 우리가 천하무적이라며 자랑삼았던 스텔스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전투체제를 갖춰가는 모습이지만 우리 정부는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도 일언반구 대책발표도 없다. 종전승리에만 도취되어 자신들의 실정과 갖가지 부정부패를 감추려 투표용지에 인주도 마르기 전에 검은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중요한 것은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일이다.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실전과 같은 방어훈련을 통해 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하여 북한이 요란할 조금의 틈도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또 하나 우려되는 일은 범죄의 파괴다. 검찰과 검찰총장을 흔들고 권력범죄 수사를 왜곡시킬 우려가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 문제가 신평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해선 안 된다. ‘검소한 권력’이라는 취입사정신으로 돌아가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내기 위해 야당과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 권력은 천년만년 누리는 것이 아니다. 권력의 욕심은 내려놓고 코로나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여야가 협치하여 국가 재도약을 이루는데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반대로 2년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초점을 맞춰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실패한 국가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기독교는 언제나 나라 사랑에 앞장서왔다. 현 정권이 잘하는 것은 지지하고 협조하며, 더 잘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진보의 거대 여당이 당장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독소조항이 여러 개 있으며, 기독교를 옹호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가치관과 활동을 제한하는 많은 법률들이 거대 여당을 통하여 끊임없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책과 일치된 모습으로 방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보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절묘하게 역사를 움직여 가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가심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 이제는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해야 한다. “새가 날개 치며 그새끼를 보호할 같이 나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간지려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였느니라” (사 31:4-5)

교회 예배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선 안돼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유흥가에서는 입장하기 위하여 분전성사를 이루고 그 안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는커녕 손님들이 뺨뺨해서 사람에게 치어서 걸려 넘어질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교회 앞에서는 경찰과 공무원 등 수백 명의 감시자들이 살벌한 정도로 교회와 대치하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 유독 기독교의 예배에 대해서만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정부가 교회를 가볍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정부와 지자체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공권력으로 위협하면서 중다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하여 초동단계에서 방역에 실패하여 어려움을 준 것

에 대하여 사과하는 마음으로, 서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역전하 예배를 강행하는 일부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위압적인 말은 뭔가? ‘교회에 긴밀히 협조를 구하고, 예배를 위해서 방역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한다”고 해야 맞지 않는가?

기독교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완전히 박멸될 때까지 국민의 건강과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협력하겠지만, 교회 예배 중단 선언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지독히 편향되게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 이름으로 비판과 비난을 받아 마땅하며, 정부나 지자체의 이런 태도는 고쳐져야 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응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 130819-중-47402호

피부·성형·비만 클리닉

연세나눔의원

진료내용

1.색소클리닉 2.여드름클리닉 3.흉터클리닉 4.비만클리닉
5.성형외과(쌍꺼풀수술, 코수술, 지방흡입, 지방이식)

월·수·금요일

야간진료

오후 9시까지

(02) 2666-3616

우장산역 4번출구 미즈메디병원 옆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10 호경빌딩6층

www.shareclinic.com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 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책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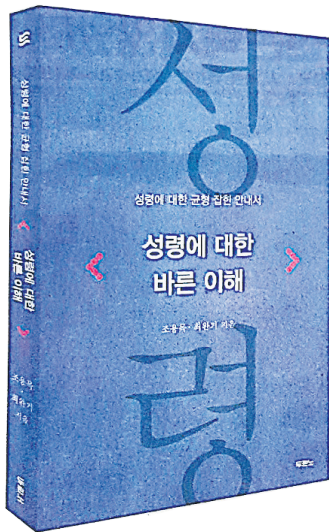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 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주의, 변영신학으로 변저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 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읽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 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 나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시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저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 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이다.

자 최완기 목사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0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를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영합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0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M.M/Master of Ministry)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기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 교 부 : 수시
-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 서 접 수 : 수시
-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 3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영합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